

On the Gyeong-Seo Jeong-eum type font.

經書正音字攷

尹炳泰
高麗大學校 司書

一. 머리 에

이 小考는 中央官造 木活字印本에 關한 一連의 研究中, 그 一部이다.

高麗朝에 發明된 金屬活字와 함께 使用되어오던 木活字는 地方이나 寺刹의 印書活動에도 影響을 미쳤으며¹⁾, 그 傳統과 技術은 朝鮮朝에까지 이어져 왔으니, 일찌기 建國初에 木活字로 功臣錄券을 印出하여 配布한 일도 있다²⁾.

太宗朝에 鑄字所를 두어 癸未字를 鑄造하였을 때에도, 技術的으로 보아 字本을 于先 木刻하여 이를 父型으로 하여, 浦土에 壓印하고, 그 자욱에 金屬의 溶液을 부어 鑄字를 鑄成한것은 慵齋叢話의 記錄만 보아도 分明하다³⁾.

이때에 字本을 木刻한 그 自體 역시 木活字라 볼 수 있다. 이러한 鑄字는 後代에 이르기까지 繼續하였으니 歷代의 鑄字鑄造는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木活字의 使用法은, 鑄字에 의하지 않는 專用的 木活字 印本까지 이루게 하였으니, 그 具體的인 例는 많다.

한편으로 鑄字印出時의 不足字를 補充하여, 木活字를 鑄字와 混用하여 使用한 時期는 相當히 오랜동안 繼續하여 왔다. 또 鑄字와 함께 特異한 大型活字에 限하여 木活字를 쓴 것은 倣綱目字같은 例에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中央官造의 木活字 使用의 一部를 例示한데 지나지 않으나, 地方官造·院字·民間造成의 木活字使用도 例外일수는 없다.

朝鮮朝에 있어서 中央官의 活字印刷上 큰 打擊을 받은 事件을 들자면 宣祖時의 壬辰丁酉의 兩戰과 仁祖時의 丙子戰 그리고 李适의 事件을 들 수 있다.

이 時期에 있어서 鑄字印刷는 큰 被害를 입어, 鑄字의 滅失이 甚하였으며 木活字가 많이 使用되었던 것이다. 그 後 戰亂이 平穩하여지자 또다시 活字의 鑄造活動이 活潑하게 進行되었으며, 同時에 木活字의 使用은 줄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校書館이나 功臣·錄勳都監을 中心으

로 잠깐 살펴본 것이며, 中央의 官署中에는 內醫院이나 司譯院 같은 곳에서도, 自己의 必要에 따라 木活字를 造成하여 書籍을 刊印하였으니, 다음에 紹介하는 司譯院의 木活字가 그 한 例이다.

司譯院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前부터 木板으로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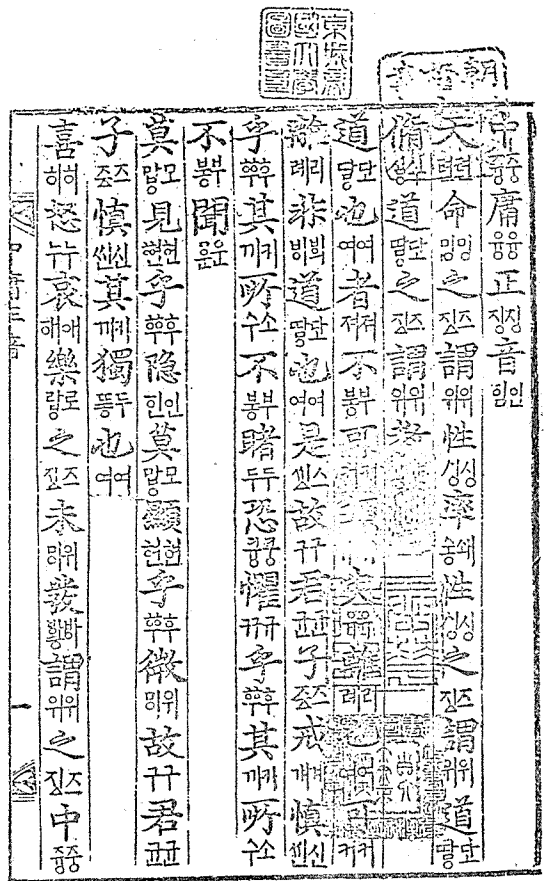


圖 1. 中府正音 1. 1A.

은 책자를 刊行하였고, 또 倣諺大字⁴⁾ 같은 特異한 大型木活字와 함께 鑄字로 책을 印出한 例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校書館에서 대신 책을 印出해주었던 것이다.

이제 紹介하는 經書正音字는 從來에는 그 活字에 대한 發表가 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紹介하는 바이다.

二. 經書正音에 대하여

經書正音에 대하여는 通文館志에 처음으로 나타나 알려지기 始作했다. 거기에

經書正音

論語二本孟子三本中庸大學各一本詩經三本書經二本春秋二本雍正甲寅院官李聖彬等捐財鑄字印⁹⁾

이라 되어있어, 經書正音에는 論語·孟子·中庸·大學·詩經·書經·春秋등 7種의 經書를, 英祖10年甲寅(1734)에, 司譯院의 院官인 李聖彬 등이 돈을 내어, 鑄字로 印刷하여 드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때에 鑄字(즉: 活字)로 印出한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文獻이 있으니, 이는 西庫藏書錄에

- 春秋正音一件二冊 鑄
- 書傳正音二件各二冊 鑄
- 詩傳正音二件各三冊 鑄
- 論語正音一件二冊 鑄
- 孟子正音一件三冊 鑄
- 中庸正音二件各一冊 鑄
- 大學正音一件一冊 鑄⁹⁾

라한데서, 目錄의 每行 끝에 “鑄”라고 明記한 部分이다.

이 책들이 비록 譯官의 돈으로 印刷가 되었지만, 어디서 行하여졌는가 하는 것은, 前記 通文館志에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西序書目에 의하면

- 書經正音二部各二本 譯院刊印
- 詩經正音二部各三本 譯院刊印
- 春秋正音二本 譯院刊印
- 大學正音一本 譯院刊印
- 論語正音二本 譯院刊印
- 孟子正音三本 譯院刊印
- 府學正音一本 譯院刊印⁹⁾

이라 있으니, 이 經書正音은 校書館이 아닌 譯院 즉 司譯院에서 刊印된 것이 確實하여졌다.

이 책들은 弘文館에도 收藏되었던 일이 있으니, 이는 그 書目⁹⁾과 現存寶物中 弘文館이라는 藏書印이 찍힌 책이 있으며, 또 帝室圖書館目錄에도 收錄되었고⁹⁾, 그 印記인 「帝室圖書之章」이 찍힌 책이 남아있음을 보아 確實하다. 그런데 이 책들은 增補文獻備考의 編纂時에는 藝文考¹⁰⁾에 收錄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理由를 알수 없다.

이 책들은 日本의 韓國語學者인 小倉進平에 의해, 中國語學書의 하나로 注意가 換起되었으나, 겨우 大學正音의 圖葉과 함께, 前記 通文館志의 譯文을 실린데 不遇하였고¹¹⁾, 또 崔鉉培씨는 春秋正音의 圖葉과 함께 言及하였으나¹²⁾, 本稿의 重點인 活字에 대하여는 전혀 言及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책들은 쿠랑의 朝鮮書誌¹³⁾, 前問恭作의 古鮮冊譜¹⁴⁾ 그리고 朝鮮圖書解題¹⁵⁾에서도 解題하였으나, 그 活字에 關하여는 전혀 考察되지 아니하였다.

이 經書正音은 經書의 正文아래에, 吳音과 漢音을 한글의 小字로 鑄字하여 쓴것이 特徵이나, 이 兩音의 鑄字가 누구에 의해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알수 없다. 다만 이들이 英祖10年(1734)까지는 이루어져, 李聖彬 등의 損財에 의하여 司譯院에서 印出되었으며, 納入된 것은 前記 通文館志의 記事에 의해 確實하다.

이들 納入된 經書正音은 다음해인 英祖11年10月과 11月에는 各各 頒賜되었으니, 그 內賜記가 있어 알수 있다¹⁶⁾.

이 經書正音은 鑲板考에 의하면 正祖 8年甲辰(1784)에 司譯院에서 木板으로 다시 覆刻되어 刊行되었다¹⁷⁾. 이는 詩傳正音·春秋正音이나 孟子正音과 같은 木板本이 傳存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이 木板本과 活字本의 區分方法은 그 版式을 보아도 알수 있지만, 版心의 花紋魚尾가 “四瓣, 單線, 單絲”(圖2 參照)로 變換 것을 보아 確사리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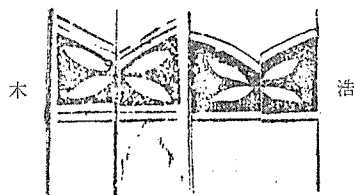


圖 2. 魚尾의 모양

周易正音이 이 活字로 印出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韓國古書綜合目錄에 의하면 木板本 4卷3冊이 現存하고 있다¹⁸⁾. 이들 木板本에 대하여는 後日에 다시 考察하겠다.

三. 이 活字의 印本들

前項의 書目을 보아 짐작하겠지만, 經書正音이란 書名은 一種의 綜合書名이다. 이 綜合書名으로 稱여 있는 책들은 거의가 奎章閣圖書中 韓國本 속에 남아 있으며¹⁹⁾, 그 一部는 韓國古書綜合目錄에 의하면 다른 圖書館에도 남아 있다²⁰⁾. 이제 그 殘存本의 目錄을 보면 아래의 같다.

論語 正音

4卷2冊. 33×21.1cm.

四周單邊 半匡: 25×16.5cm. 有界. 10行20字, 한글小字双行, 白圓圈有. 版心: 「學而」 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双線·双絲) 「論語正音」(張次) 下白口.

內賜記: 「雍正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

藏: 奎章閣(奎1606 印「弘齋, 承華殿圭, 帝室圖書之章」) 外2種. 奎3649 印「宣賜之記, 弘齋」 梨花女大(2卷1冊)

孟子正音

6卷 3冊. 33×21cm.

四周單邊. 半匡: 25.5×16.5cm.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 版心: 「梁惠王」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孟子正音」(張次) 下白口.

藏: 奎章閣(奎1665, 印「宣賜之記,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外 3種. 奎3907, 印「學部圖書, 弘齋, 承華藏主, 編輯局保管」外 2種)

中庸正音 (圖1 參照)

1册(23張) 32.8×21.2cm.

四周單邊. 半匡: 25.3×16.3册.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中庸正音」(張次)

藏: 奎章閣(奎1765, 印「弘齋, 承華藏主」) 外 3種. 奎3402, 印「弘齋, 承華藏主, 學部圖書, 編輯局保管」外 3種)

外 3種. 奎3291, 印「宣賜之記, 弘文館」)

詩傳正音

7卷 3册. 32×20.6cm.

四周單邊. 半匡: 24.5×16.3cm.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 白圓圈有. 版心: 「周南」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詩傳正音」(張次) 下白口.

藏: 奎章閣(奎 2861, 印「弘齋」) 外 2種. 奎3908, 印「弘齋, 承華藏主, 學部圖書, 編輯局保管」外 2種)

書傳正音

4卷 2册. 32.8×21cm.

四周單邊. 半匡: 25.3×11.6cm.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或白圓圈有) 版心: 「堯典」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書傳正音」(張次) 下白口.

內賜記「雍正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

藏: 奎章閣(奎 1645, 印「宣賜之記, 弘文館」) 外 2種. 奎 3906, 印「學部圖書, 編輯局保管」外 2種) 梁柱東(零本 1册)

春秋正音

4卷 2册. 32.9×21cm.

四周單邊. 半匡: 25.5×16.3cm.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 版心: 「隱公」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春秋正音」(張次) 下白口.

內賜記: 「雍正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

藏: 奎章閣(奎1642, 印「弘齋, 承華藏主」) 外 3種. 奎 1643, 印「宣賜之記, 弘文館」) 外 2種) 서울대(일사 181.1—C472j, 印「大走, 卞昌和氏, 密陽」)

以上 7種의 書籍 以外에, 이 活字로 印出한 책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周易正音의 木板本이 남아 있어, 이 活字로 찍은 책이 있었지 않았나 짐작 될 뿐이다.

四. 이 活字에 대하여

위의 같은 印出本과 그 記錄이 알려지므로서, 이 活字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몇가지 事實이 있다. 이제 이를 아래와 같이 項을 나누어서 考察한다.

1. 書體와 字本

이 活字의 書體는 衛夫人의 글씨를 이은 王羲之의 글씨인 甲寅字體를 닮은 方正한 楷書體이다.

이 當時의 甲寅字體의 鑄字로는 戊申字가 使用되고 있었으며, 壬辰字가 鑄造되기 前이니, 어떤 面에서는 戊申字를 模倣한 倣戊申字體라 할수 있다. 그러나 「子」와 같은 글자에 있어서는 戊申字를 닮은 點도 發見된다. 한가지 分명한 것은 이보다 直前에 이루어진 元宗字와는 全혀 다른 글씨體이다.

그러나 그 字本이나 字本의 筆書者는 分明치 않다. 字本은 그 書體로 보아 戊申字로 印出한 책인것 만은 틀림없으며, 字本의 筆書者는 司譯院에도 能筆者가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司譯院의 一員이었음이 틀림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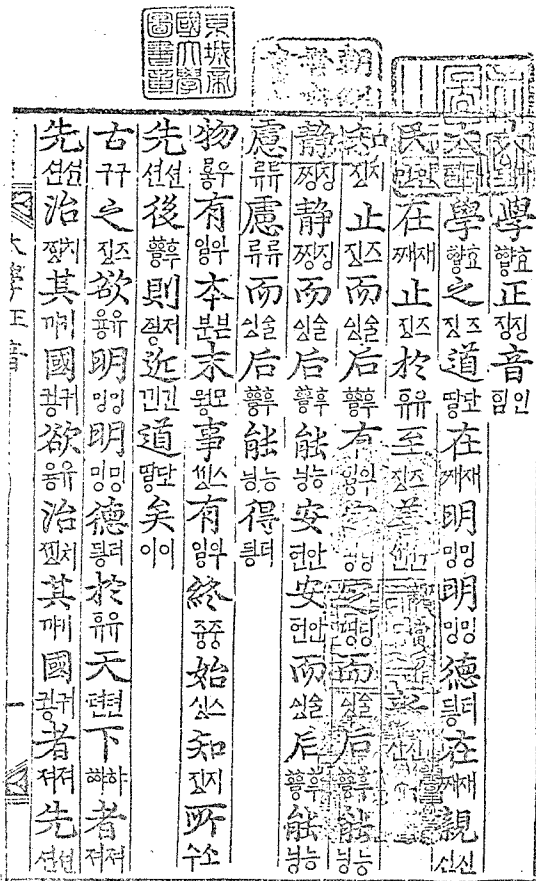


圖 3. 大學正音 1. 1A.

大學正音 (圖3 參照)

1册(12張) 32.9×21.1cm.

四周單邊. 半匡: 25.3×16.5cm. 有界. 10行 20字, 한글小字双行. 版心: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四瓣. 双線. 双絲) 「大學正音」(張次)

內賜記「雍正十三年十月十六日. 內賜…」

藏: 奎章閣(奎 1764, 印「弘齋, 承華藏主, 帝室圖書之章」)

2. 代表字

이들 活字는 戊申字와 거의 같은 書體임으로 戊申字의 代表字를 이 活字의 代表字로 할수 있다.

같은 甲寅字의 字體中에도 若干의 區分할 수 있는 字體가 있지만, 이 活字의 代表字는 每字의 字體가 不同하므로, 굳이 골라내면 “中”이나 “也”를 들수 있다. 그러나 이를 代表字로 斷定할 수는 없다.

漢字가 이와 같이 代表字를 選定하기 힘든 것과는 對照的으로, 한글 活字들은 쉽사리 區別할 수 있는 代表字들이 많다. 그것은 이 한글 活字들이, 우리나라의 音이 아닌 中國音을 翻字하는데 쓰여진 것이므로 이 當時의 諺解 등에서 常用치 아니한 “△·ㄱ” 같은 子音이 보이며, “ㅎㅎ·ㄷ트·빙”같은 子音과 “ㅍㅍ·ㅈㅈ·ㅊㅊ”같은 重母音이 보이고 있다. 이런 面에서 이 한글 小字의 翻字用 活字는 거의 全部가 代表字로 볼수 있다. (圖4參照)



圖 4. 字體(原寸)

3. 活字의 材料

이 活字로 찍은 印面을 檢討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點을 考慮하여 볼때 木(나무)이라고 斷定할 수 있다.

첫째, 字型이 不同한 것.

둘째, 刀刻의 흔적이 보이는 것.

셋째, 木理가 많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등이다. 이 렇한 鑄字와 木活字의 判別方法은 이미 따로히 論한바 있으므로 省略한다²¹⁾.

그런데 여기서 考慮해야 할것은 通文館誌에서 “鑄字”로 印納하였다는 것과, 西庫藏書錄에 “鑄”라고 表示한 點이다. 이 “鑄”란 字는 모두가 金屬을 意味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金屬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木鑄字 土鑄字와 같이 鑄字는 活字를 意味하고 있으니, 이는 東國厚生錄의 記錄²²⁾ 以外에도, 筆者가 實查한 例로 竹洞活字²³⁾나 訓練都監字²⁴⁾ 그리고 地方의 官造木活字等에서 많이 使用되었던 것이

다.

4. 造成과 使用

이 活字를 만든 것은 通文館誌의 記錄에 의해, 司譯院의 院官인 李聖彬 등의 捐財에 의해서 이다.

李聖彬의 傳記資料는 譯科榜目²⁵⁾이나 姓源錄²⁶⁾에도 記錄이 나오지 않아 알수 없으나, 이 活字가 이루어진 時期는 雍正 甲寅 즉 英祖10年(1734)부터 始作하여 다음 해인 英祖11年(1735) 9月까지는 틀림없다. 이는 韓國書誌年表에

1735(乙卯) 英祖 11年

10月16日 大學正音·論語正音을 頒賜하다.

11月 6日 書傳正音·春秋正音을 頒賜하다²⁷⁾

라 하여, 英祖11年(1735) 10月에는 이미 印出이 끝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이 活字가 언제까지 使用되었으며 또 남아 있었는가는 것은, 前記한 이 活字의 印出本인 論語正音등 7種의 書籍만 알려져 있으므로 알수없다.

다만 이들 木活字가 戊申字의 補字로 轉用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確實한 文獻이 없어 斷言할수 없다.

앞으로 英祖11年 直後에 印出된 책으로, 字體가 戊申字體이며, 또 版心의 四瓣花紋魚尾가 雙線 雙絲인, 木活字 印本이나 木活字 混用 印本이 나온다면, 이 活字로 찍었거나 混用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後日을 기다릴수밖에 없다.

五. 이 活字의 字名에 대하여

이 活字의 字名에 대하여는 從前에 發表된바 없으므로, 命名할 必要가 있다.

活字의 命名에 있어서, 從來의 두드러진 現象은

첫째, 鑄成 또는 造成된 해의 干支를 쓰는 경우.

둘째, 筆書者의 號나 諱를 붙이는 경우.

셋째, 그 活字로 印出한 初印本의 書名이나 別書名을 붙이는 경우.

네째, 찍은 책의 主題를 따서 印...字라 부르는 경우.

다섯째, 鑄成 또는 造成한 機關의 名稱을 붙이는 경우.

여섯째, 鑄成 또는 造成한 地域·地方官·院宇·寺刹 등의 名稱을 붙인 경우.

일곱째, 書體를 따서 붙이는 경우.

여덟째, 위의 일곱가지의 複合으로 붙이는 경우, 등등을 들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詳論한 論語正音, 등을 찍은 活字에 대하여는 위 셋째 項에 準하여 命名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런 意味에서 이 活字의 名稱을 經書正音字로 假稱할 것을 提案한다.

그 理由로는

첫째, 經書正音이라는 名稱은 論語正音등의 事實上 綜合書名으로, 通文館志에서 이미 使用된바 있고.

둘째, 經書正音を 이루고 있는 各正音を 찍은 以外에는 다른 印出本이 알려지지 않았고.

셋째, 이 活字의 造成이 始作된 甲寅이라는 干支를 採擇하면, 初鑄甲寅字라는 鑄字와 混同이 될뿐만 아니라, 干支로만 붙여서 命名함에 대하여는 여러번 反對하였으며,

넷째, 이 活字가 甲寅字體의 活字로서, 戊申字를 模倣하였다하여, 倣戊申字體木活字라 부를수도 있을것이다, 倣戊申字體木活字는 事實上 따르히 있으며,

다섯째, 司譯院이나 그 略稱인 譯院을 붙여 (司) 譯院活字라 하고 싶으나, 이 司譯院에서 造成된 活字에는 倣譯大字 등 여러가지가 있을 뿐아니라, 아직 未發表된 여러가지 活字가 더 存在하므로 不適當하다는 點이다.

六. 結으로

以上으로서 司譯院의 院官인 李聖彬등의 捐財로 印出된 論語正音등의 經書正音에 대하여 알아 보았고, 또 이들을 찍은 活字가 英祖 10~11年(1734~35) 사이에 司譯院內에서 戊申字(甲寅字體)를 模倣하여 造成한 木活字인 것을 밝혔고, 이들 活字의 名稱을 經書正音字라 부를 것을 提案하였다.

여기에 紹介한 論語正音 등 7種의 活字本과 周易正音 등 여러가지 木板本의 經書正音들에 대한 語學的인 面의 研究, 특히 그 翻字의 表記등에 대하여는, 아직도 아무런 研究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대로 남아 있다. 이 方面의 國語學者들의 研究가 期待된다.

그리고 이들을 찍은 木活字에 대하여는, 그 造成數·字本·字本의 筆者·最終 印本등,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여러가지 事實이 있지만, 于先 報告하는 바이다. 이 論文을 이룩하도록 資料 複寫를 도와주신 裨賢淑·李京南司書, 그리고 貴重한 時間을 주신 李載喆 鄭亨愚 李炳穆교수와, 孫寶基博士 에게도 感謝를 드린다. (1973. 12. 9. 稿了)

<註>

1.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8. 12. p.9

65~1061.

1. 筆者. 高麗金屬活字本과 그 起源. 도협월보, v.14, no.8, p.8~12. (1973. 8)

2. 功臣都監. [開國原從功臣錄券] 朝鮮史料集眞, 第一集, [京城] 朝鮮總督府, 昭和12(1937) 第二圖 및 解説, p.7~11.

3. 成 俔. 慵齋叢話卷之七.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4. 原文 p.457, 譯文 p.259)

4. 筆者. 倣譯大字考. (未發表 原稿)

5. 通文館志. 京城, 朝鮮史編修會, 昭和19(1944) 卷之八, 1. 10A. (朝鮮史料叢刊, 第二十一)

6. 西庫藏書錄(奎章閣圖書, 奎7717) “經書類” 1.1B~3B.

7. 西序書目. “甲庫經部”, 1.11A~17A.

8. 弘文館書目. (奎章閣圖書, 奎11711)

9. 帝室圖書目錄. 宮內府奎章閣圖書課, 隆熙3(1909) 11. “國朝版之部 經部 小學類,” p.18~20.

10.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 서울, 東國文化社, 1964. 影印本下., p.837~951, 1034~35. 卷之二百四十二~五十 藝文考一~九.

11. 小倉 進平. <增訂·補注>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昭和39(1964) 10. p.577~579.

12. 崔 鉉培. 한글갈(正音學) 서울, 정음사, 1940. p.293~294.

13.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eéenne... Paris, Ernest Leroux, 1895. Tome 1, p.119~20. no.168.

14. 前問 恭作, 編. 古鮮冊譜. 東京, 東洋文庫, 昭和19(1944) 10. (東洋文庫叢刊, 第十一) 第一冊, p.399~400.

15.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 京城, 朝鮮通信社, 昭和7(1932) 8. p.7, 10, 23, 25, 27~29, 31.

16. 筆者編. 韓國古書年表資料.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9. 8. p. 48

17. 徐 有築, 編. 鏡板考. 서울, 寶蓮閣, 1968. 10. 影印本. p.34~35, 43, 44. 에 “當宇甲辰, 司譯院校刻...”이라 함.

18. 筆者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12. p.647.

19. 奎章閣圖書 韓國本 總目錄. 서울,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5. 12. p.4~19.

20. 註18同書. p.138, 170~171, 220, 338~339, 428, 662, 722.

21. 筆者. 浮碧樓重修記와 같은 活字 印本들 : 反“聚珍字”論. 圖書館學, 第三輯, p.644~65. (1973. 12)

22. 安 春根. 韓國書誌學. 서울, 通文館, 1967. 11. p.81~82.

23. 筆者. 竹洞活字 考. (未發表原稿)

24. 鄭 琢. 梨園先生文集卷之二, 1.39A~40B. 序 “紀效新書節要序”外 多數.

25. 譯科榜目. 活字本. 2卷2冊.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藏(請求記號, 六古 B8~A35)

26. 李 昌鉉, 編. 姓源錄. 寫本. 10卷 10冊.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請求記號, B13~A42)

27. 筆者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8. p.100.

28. 註4同 (1973. 12. 12. 註完)